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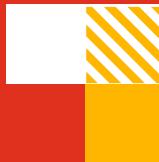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주요 국가 및 기업의 전략적 대응

삼일PwC경영연구원

April 2025

* 본 자료는 4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책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바, 이점 유의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코 '관세' 였습니다.

특히 4월 2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전세계는 총성 없는 관세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무역장벽 국가 중 하나인 한국도 25%라는 높은 상호 관세율을 제시 받아 현재 미국과 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고관세 의지를 꺼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전략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할까요?



앞으로 수차례의 협상 과정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줄 수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대응 전략을 구체화 해야겠지만, 그전에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 자립도 등으로 미국 의존도를 낮춘 중국은 다수의 카드로 미국에 보복 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동맹국이자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인도, 베트남 등 한국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미 시작했기에 기업들도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동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도생 생태계에서 적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발 고관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국의 전략 방향과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을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은 미국 '안'을 비롯해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한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함을 밝히며, 본 보고서가 전략 대응에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ecutive Summary

미국 '안' 정책 (트럼프 2기 관세)

- 現 전세계 10% 보편관세 발효
- 한국 포함 상호관세 90일 유예

- 現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25% 관세 발효
- 반도체, 의약품 관세 예고

미국 '밖' 대응 현황

국가 대응

중국	EU	일본*	베트남*	인도*
기술 자립 등의 무역카드로 맞대응	경제적 이익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	미일 동맹 및 미국 투자 강조하여 협상	무역 장벽 완화 측면에서 협상	무역 갈등 선제 완화 조치하여 협상

기업 대응

- 미국 내 공급망 이전 및 생산 확대
- Korea One Team
(동종기업간 협력 체제 구축)
- 미국 기업과의 M&A
- 글로벌 판로 다각화
- 기술 제고

* 한국이 전략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국가들 (한편, 중국, EU는 관세 대응 카드 다수 보유한 국가들로 한국과는 다른 상황)

한국 대응 전략 제언

외교 측면

미국과의 안보 동맹, 미국산 수입 확대, 미국 투자* 등으로 협상

*미국산 LNG 수입, 미국 화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 K-조선업 협력 등

(중장기 전략)
협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 최대화

산업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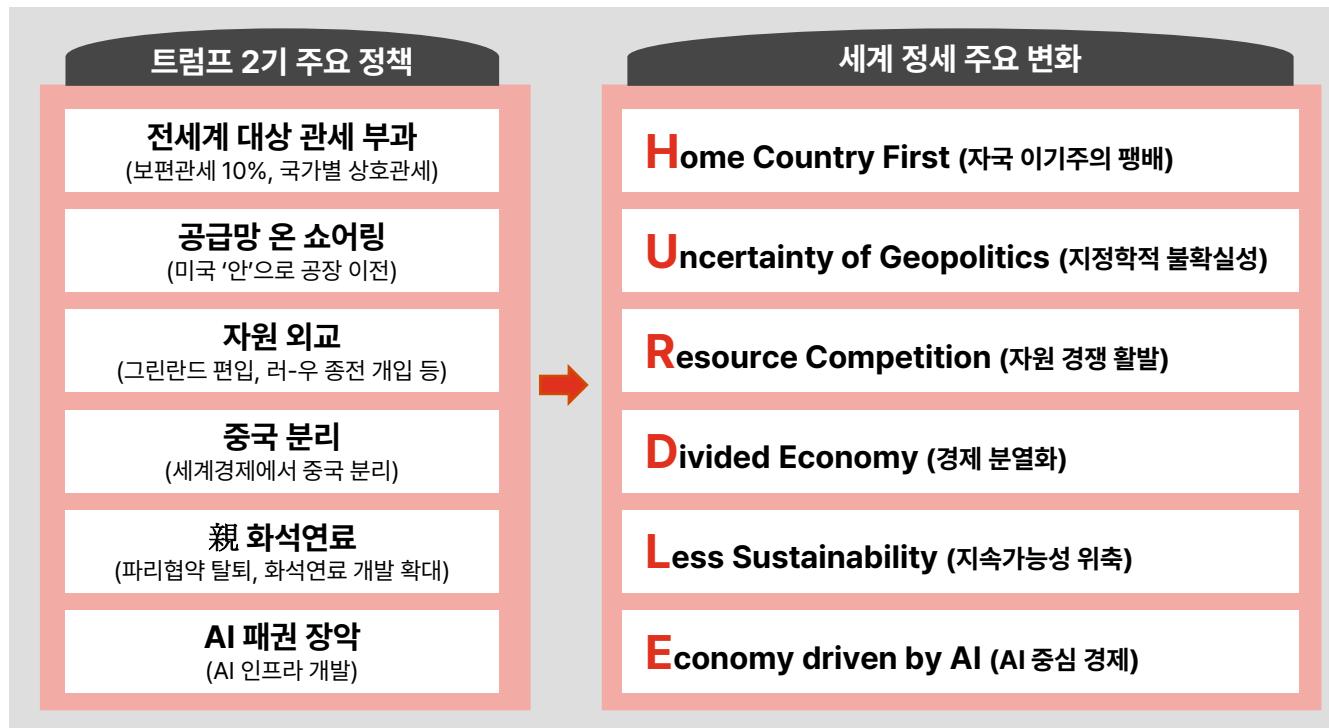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재검토

(중장기 전략)
기술 혁신을 통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확보

1.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계 정세 변화



-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에 가까운 정책 강하게 밀어붙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영향으로, 전세계 모든 영역의 장벽(허들, HURDLE) 높아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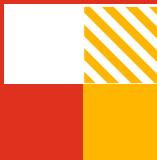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요 글로벌 이슈



H: 자국 이기주의 팽배
U: 지정학적 불확실성
R: 자원 경쟁

D: 경제 분열화
L: 지속가능성 위축
E: AI 중심 경제

2.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행보: 관세 (1/2)



▪ 트럼프 2기행정부 취임 후 100일간, 글로벌 경제에 강한 드라이브 건 정책은 당연 '관세'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미국 경제 재건을 목표로 관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 → 미국 경제에 방해가 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판단되는 산업 및 국가를 식별해 고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100일간 발효된 관세

대상	조치 내용	날짜
국가	중국 10% 관세	2/10
국가	-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 중국 추가 10% 관세 (총 20%)	3/4
산업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3/12
산업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3
국가	185개국 10% 보편관세	4/5
국가	중국 대상 총 145%* 관세 발표 <small>*현재, 트럼프 대통령 중국 관세 인하 검토 중</small>	4/9

트럼프 대통령 예고중인 관세

대상	조치 내용
산업	자동차 핵심 부품 (5/3일 발효 예정)
산업	4.5톤 초과 중·대형 트럭과 부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4/23일)
산업	반도체 반도체 장비·파생제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4/14일)
산업	의약품과 의약 원료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4/14일)
산업	목재·원목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3/1일)
국가	구리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25일)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조사를 수행해,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의 긴급 조치 이행 가능

자료: 백악관 발표 재정리

▪ (영향) 4/2일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 시장 충격 → 제2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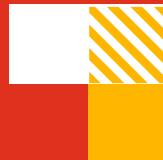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당일, 뉴욕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는 3조1000억 달러 → 코로나 19 ('20년 6월)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
- 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와 유가도 연쇄적으로 폭락해 세계경제 출렁이자, 스무트-홀리 관세법 전철 밟는 건 아닌지 우려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율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능가한다는 전문가 의견 다수:
 - 스무트-홀리 관세법 당시 평균 관세율이 약 23%인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에서는 평균 관세율이 24% (사라 비앙키, 에버코어 수석 전략가)
 - 트럼프 대통령 제시한 평균 관세율이 19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추정 (피치 레이팅스)



(참고)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란?

- 1929년 시작된 대공황 시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 도입
 - * 해당 관세법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2만여 종류의 해외 수입품에 최고 4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
- 하지만,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되자마자, 무역 상대국은 즉각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세계 무역량 90억 달러(1929년)에서 30억 달러(1933년)로 약 3배 이상 대폭 감소했을 뿐 아니라, 세계 무역 규모 60% 하락 →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교훈으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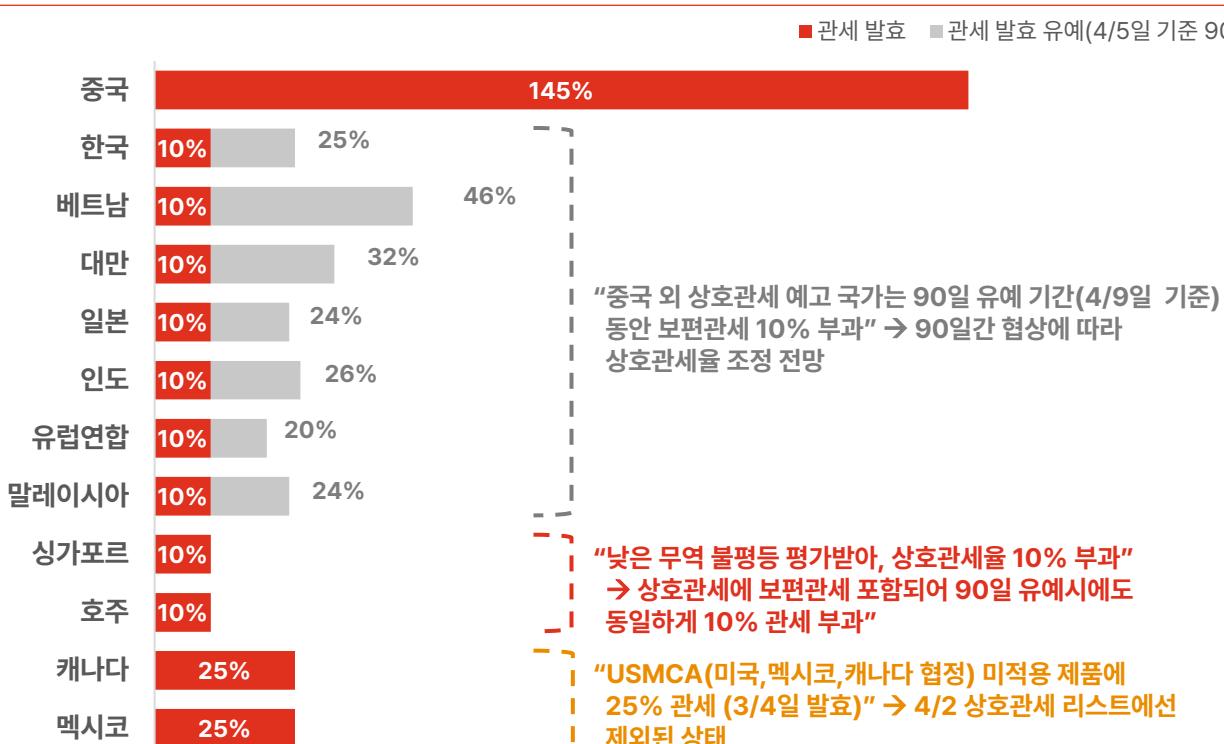
2.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행보: 관세 (2/2)



- '25년 4월 2일은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 선포의 날: 미국에 수입되는 전세계 국가 상품에 10% 보편관세 및 미국 주장 무역 불평등 최악 57개국에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 제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세계 국가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 심하다고 판단한 57개국*에는 불평등 수준을 계산**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4/2일 발표
*한국 포함 56개국 + 27개국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EU)
** 트럼프 부과 상호관세율(%) = (미국의 무역적자 / 미국의 상대국 수입액) ÷ 2
 - 참고로, 국가별 상호관세에는 10% 보편관세 포함*
*예) 25% 상호관세 제시받은 한국은 변동 없다면, 보편관세 포함 25% 최종 부과
- 전세계 대상 10% 보편관세는 4/5일 발효되었으나, 상호관세는 90일간 부과 유예 → 하지만,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은 추가 관세 부과하여 즉시 발효
 - 보편관세는 4/5일 발효되어 전세계 국가 10% 관세 부과 시작
 - 상호관세는 상대국들의 협상 요청을 이유로 90일간 유예하겠다고 4/9일에 발표 →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 부과국들은 유예 기간 동안 10%의 보편관세만 부과 적용
 - 그러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한 중국에는 총 145%로 관세율 즉각 상향 및 발효 → 중국도 보복 차원에서 미국에 총 125% 관세 부과로 즉각 맞대응(4/14일) →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인하 시사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9일 기준으로 90일동안(7/9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국과 관세 협상 진행중 →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따라, 10% 하한선까지 상호관세율 낮출 수 있다고 언급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교역국별 관세 부과 및 예고 현황

('25년 4월 24일 기준)



자료: 백악관 발표 재정리

참고) 트럼프 2기 100일 행보: 주요 내용 상세



'25.4.25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일자*
경제·통상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美 상무부 4/1일 검토 결과 제출)	1/20
	만성적 무역적자 요인 경제·안보 측면에서 영향 조사 시행	1/20
	중국 10% 추가 관세 발효	2/4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 발효 * USMCA 미적용 제품 대상	3/4
	철강·알루미늄 제품 기존 면세 퀘터 폐기, 전 세계 25% 부과 발효	3/12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2/25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원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개시 (11/26일까지 조사)	3/1
	베네수엘라산 석유 및 가스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 부과	3/24
	전세계 대상 보편관세(10%) 및 무역 불평등 57개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4/2
	모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발효	4/3
외교·안보	전세계 대상 보편관세 10% 부과 발표	4/5
	중국 제외 56개국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7/9일까지)	4/9
	중국 104%+21%+20% 추가 관세 발효 → 총 145%	4/9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과 의약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개시	4/14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4.5톤 초과 중대형 트럭과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개시	4/23
재정·기술·산업	150여 개 자동차 부품 25% 관세 발효 예정	5/3
	남부 국경 국가 비상상태 선포 (멕시코 국경 1,500명 정규군 파견)	1/20
	마약 카르텔 해외 테러조직 지정 → 펜타닐 공급국 고관세 등으로 대응 예고	1/21
기후·에너지	AI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 철회	1/20
	국부펀드 설립	2/3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 중국 조선업 견제 및 외국산 선박 대량 구매 내용 포함	4/9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 완화 행정명령	4/9
사회개혁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 (UN 통보 기준 1년 후 효력 발생)	1/20
	LNG 수출 승인 동결 해제	1/20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1/20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설립 (NEDC에 석유, 휘발유 생산 증가 요구)	2/14
	육·해상 풍력 프로젝트 승인/허가/대출 일시 중단	1/20
	가동 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재가동 및 석탄 생산 확대, 석탄 핵심광물 분류 행정명령	4/8
사회개혁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 프로그램 종료 (美 법원 DEI 정식 판결 결정시까지 행정명령 중지 명령, 2/21일)	1/20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권한 확대: DOGE 대표 정부 기관 파견 및 정부 지출 투명성 검토 권한 부여	2/26

*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1/11)



- 그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제시 받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국가별 대응 방법은 크게 '협상'과 '보복 조치' 양상 속에서 빠르게 진행 중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원산지 기준으로 부과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국가의 상호관세 대응 방향과 진척 상황 아는 것이 중요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무역 및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의 주요 핵심국을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일본으로 식별하고, 해당 국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 한국의 10대 ① 생산공장 위치국을 기준으로, ② 수출국, ③ 수입국 등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4개 핵심국과 27개국 회원국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식별하여 검토

한국 10대 생산공장 위치국

국가	韓 생산공장 수
베트남	2,602
중국	2,397
미국	933
태국	348
일본	325
인도	305
인도네시아	272
말레이시아	181
싱가포르	177
필리핀	158

* 2024년 기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 10대 수출국

국가	수출액 (백만달러)
중국	133,011
미국	127,761
베트남	58,323
홍콩	35,022
대만	33,969
일본	29,607
인도	18,696
싱가포르	18,224
호주	15,598
멕시코	13,604

* 2024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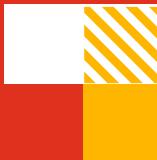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한국 10대 수입국

국가	수입액 (백만달러)
중국	139,878
미국	72,132
일본	47,594
사우디아라비아	31,450
대만	30,225
호주	29,955
베트남	28,444
독일	22,292
아랍에미리트	17,931
카타르	14,208

* 2024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2/11)



중국 (1/3)

▪ (미국 제시 상호관세율 및 부과 현황) 4/9일, 145% 부과 발효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 가장 먼저 관세 부과 → 2/4일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발효
- 중국 또한 미국에 즉각 관세 부과하며,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 격화 중 → 現 미국은 중국에 총 145%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에 총 125% 관세 부과
* 상호간에 양보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밀고 나가는 위험한 경쟁 상황
-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 언급한 상태 (4/24일 발표) → 모니터링 필요

▪ (대응 현황) 낮아진 미국 의존도, 기술 자립도, 핵심 광물 등의 무역 카드로 미국에 맞대응

-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 갈등 겪어온 중국은 그동안 미국 무역 의존도 줄이고, 무역 시장 다각화함으로써 관세 대응력 높인 상태

- ✓ (중국의 미국 무역 의존도 변화 추이) 미·중 교역 규모*: 6,598억달러('18년) → 5,824억달러('24년)

* 수입액+수출액

- ✓ (무역 시장 다각화) 중국 수출에서 미국 차지 비율* 19%('18년) → 14.7%('24년)로 하락했으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

- 더불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인 '8대 산업 육성*' 등을 토대로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기술 수준 76%('18년) → 83%('23년)로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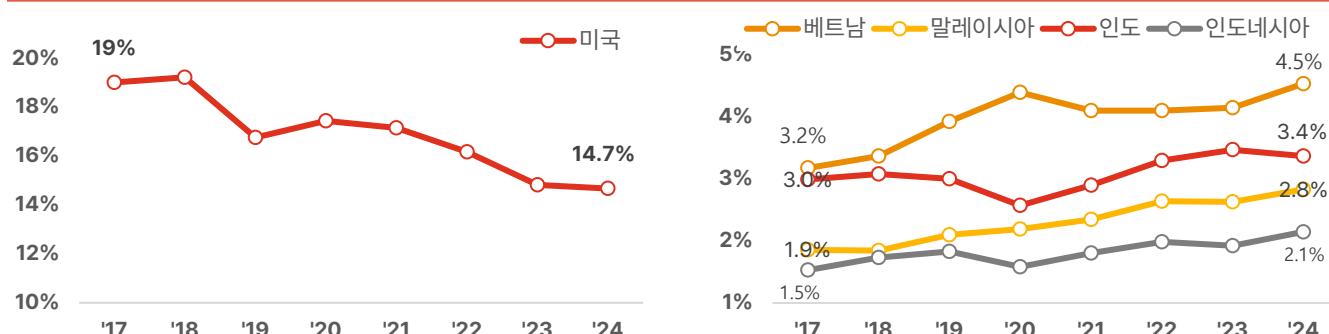
* 21년 발표된 중국 5개년 계획으로, '25년까지 △희토류 등 첨단 신소재 △고속철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기 엔진 및 가스터빈 △베이더우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카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장비 육성 목표

- 중국이 보유한 핵심 광물도 미국발 관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 ✓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2% 차지(1위 생산국) → 이 같은 영향아래, 중국은 미국발 관세 보복 차원에서 4/4일 첨단 산업 필수재인 6종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에 대한 특별 수출 허가제 도입

*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정제되어 수출되는 희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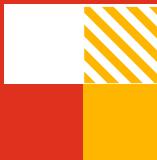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중국의 무역 시장 다각화) 중국 수출에서 '미국'과 주요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추이*



* 트럼프 1기 행정부('17년~'21년)부터 '24년까지 중국의 연도별 전체 수출액 중 미국 등 각국의 수출액 비중을 계산

자료: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3/11)



중국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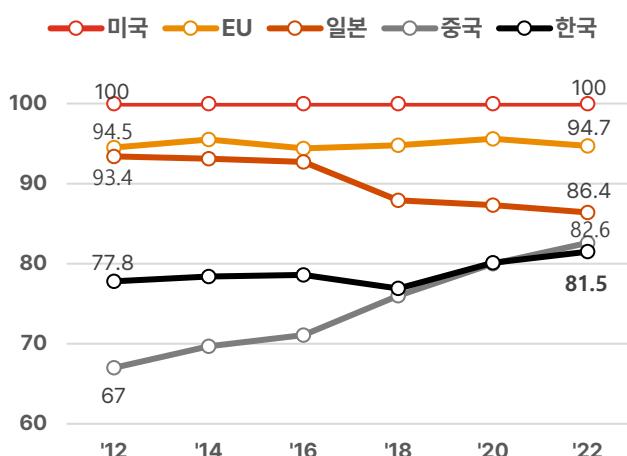
- (대응 전망) 미국 추가 보복 시, 6대 보복 수단, 위안화 약세, 미국 국채 매도 등 다양한 무역 카드로 계속해서 맞대응할 전망 →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은 열어놓은 상태

-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발 고관세 추가 대응을 위해 6대 보복 수단 준비 중
 - ①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②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③ 펜타닐 미중 협력 중단, ④ 미국 흑자 서비스 무역 제한, ⑤ 중국 내 미국기업 지식재산권 조사, ⑥ 미국 영화 수입 축소/금지 등
- 위안화 약세도 강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 ✓ 현재, 1달러 = 7위안 이상인 포치(破七)* 유지 중 →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 수출 경쟁력을 높여 미국의 고관세 영향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흐름 속에서 관세 위협에 맞대응 가능
 - * 달러당 7위안이 넘으면 위안화 가치가 통상 수준보다 낮다고 인식돼, 금융시장에서도 7이 깨진다는 의미에서 포치라는 용어 주로 사용
- 중국은 미국 국채 2위 보유국*으로, 미국에게는 부담 작용
 -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리 및 물가에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에 민감 → 중국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급락)에 부담 줄 수 있어, 이를 관세 대응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일부 존재

*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7,590억달러('24년 기준)로 보유 1위국 일본(1조1680억달러, '24년 기준) 다음으로 많이 보유

(중국 기술 자립도) 주요국 핵심기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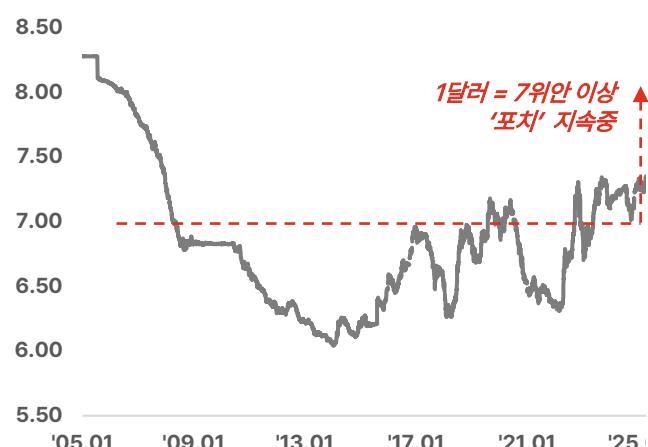


* 기술수준이 세계 선두인 미국을 100% 기준으로 놓고, 주요국의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평가. 2년마다 평가되며, '22년 평가가 가장 최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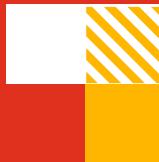
달러당 위안화 추이 ('05~'25년)

(단위: 위안)



자료: FRED, 삼일PwC경영연구원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4/11)



중국 (3/3)

트럼프 2기 행정부 VS. 중국 관세 부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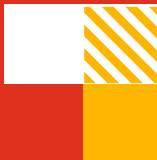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25.4.25 기준

미국



자료: 백악관, 언론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5/11)



유럽연합(EU)

▪ (미국 제시 상호관세율 및 부과 현황) 20% 상호관세 90일 유예(4/9일 기준), 現 10% 보편관세 발효

- 미국의 對EU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 상호관세율 EU에 제시

▪ (대응 현황) 경제적 이익 크게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 진행 중

-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3/12일)에 맞대응해 4/15일부터 미국산 일부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함에 따라 동일하게 90일간 보류하기로 결정
- 4/15일 미국과 첫 협상을 시작한 EU는 상호 이익 측면에서 협상 접근 → EU는 '제로-포-제로(Zero-for-Zero)',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공급 과잉 억제' 제안

✓ (제로-포-제로) EU는 자동차 및 주요 산업재에 대한 상호간 관세 전면 철폐 제시 → 하지만, 기존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EU가 높았던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당 제안 거부 상태

* 기존 EU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은 10% + 부가가치세 평균 20% 가량인 반면, 미국은 EU산에 2.5% 부과. 하지만 4/3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발표함에 따라, 현재 미국 수출 EU산 적용 관세율은 25%

✓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공급 과잉 억제)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생산* 억제위해 상호간의 무역 협력 필요성 제시 → 해당 이슈는 EU-미국 모두 우려하는 사항으로 합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4년 기준, 중국 철강 생산량은 10억510만 톤으로 전세계 공급량의 53.4%, 알루미늄은 4100만 톤으로 59% 차지해 생산량 1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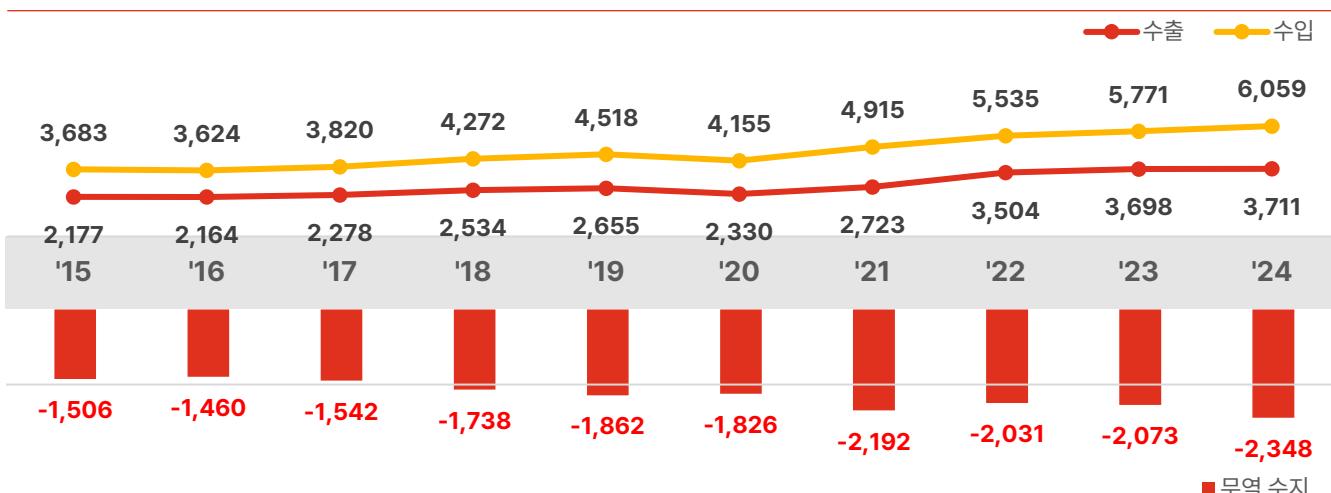
- 한편, 미국이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는 EU의 식품·디지털 규제*는 경제적 이익 보전위해 양보치 않는 중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복잡한 위생(SPS)검역·디지털 규제가 시장 접근 제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 그러나 EU는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 안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해당 규제는 협상 주제에서 제외할 방침

▪ (대응 전망) 협상이 기본 자세이나, 실패 시 보복 조치로 대응 계획

-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유예 기간동안 협상 지속할 계획이나, 협상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보류 발표한 보복 조치를 90일 뒤(7/14일) 바로 발효할 계획 → 보복 조치는 약 21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해당(EU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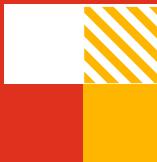
미국의 對EU 수출입 및 무역 수지 추이 ('15년~'24년)

(단위: 억달러)



자료: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6/11)



● 일본 (1/2)

▪ (미국 제시 상호관세율 및 부과 현황) 24% 상호관세 90일 유예(4/9일 기준), 現 10% 보편관세 발효

- '24년 기준, 미국의 對일본 무역 적자액은 685억달러(수출 797억달러, 수입 1,482억달러)로, 적자국 8위로 집계
- 높은 무역 적자액과 더불어,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에 24% 상호관세 제시
* 미국 정부는 3/31일 발표한 NTE(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및 외국산 농산물의 높은 관세와 규제 등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 (대응 현황) 미일 동맹 및 미국 투자 강조통한 '협상' 진행

- 2/7일, 이시바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빠르게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외교적 동맹 강화와 미국 투자 확대 등을 약속 → 이는 미국의 고관세 부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

- ✓ (경제외교적 동맹 강화) 중국 견제 목적의 한미일쿼드 등의 다자간 안보 협력 촉진 및 '27년까지 방위비 2배(트럼프 1기 대비) 증액 약속*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으나, '27년까지 2%로 상향할 계획 → '25년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6% 수준인 8조6691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

- ✓ (미국 투자 확대) 대미 투자 규모 1조 달러 증액 및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합작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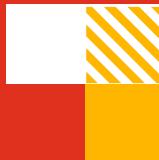
*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 옮긴 다음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로 예상되며 본격적 수출은 '31년도 전망

-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선제적 노력에 불구하고, 4/2일 트럼프 대통령이 24%라는 상호관세를 일본에 제시 →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에 강한 유감을 표했으나,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 방안 등 검토해 미국과 협상 진행
- 4/16일 상호관세 협상 시작한 일본 → 트럼프 대통령 협상에 직접 참여하며,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 확대 방안, 對일본 무역 적자 축소,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 등을 놓고 협상 진행했지만 양국 입장차만 확인

▪ (대응 전망) 경제외교적 협상으로 접근 전망

-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보복 관세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협상 진행
- 5/1일 예정된 2차 협상에서는 미국이 주장해온 무역장벽인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 심사 대폭 간소화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전망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7/11)



● 일본 (2/2)

2/7일 미국일본 정상회담 주요 약속 내용

분야	주요 약속 내용
외교 안보	한미일쿼드 등 다자간 안보 협력 촉진
	한반도 안전안보 노력에 지속 전념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
	일본 - '27년까지 방위비 2배(트럼프 1기 대비) 증액
	대만해협 평화 측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경제	일본 - 美국 투자 규모 1조 달러로 증액
	미일 방위 방지 기술 협력 촉진
	일본 -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미일 AI, 반도체 분야 협력 촉진

자료: 언론종합

미국 주장 일본의 주요 무역 장벽 ('25년 NTE)

품목	무역 장벽 지적 사항
쌀	수입 제한에 따른 실질적 관세 부담 상승
수산물	해외산 고등어 등에 수입 상한과 복잡한 수입 절차, 연어 등 고관세 부과
자동차 및 전기차	수입차에 대한 높은 안전기준 제시
	일본의 독자적인 전기차 충전 규격 (CHAdeMO)
	일본 주력 제품인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많은 보조금 지급
의약품	약가 변경 필요시 의견 제출 기회 부족 및 투명성 결여

자료: 2025 NTE, 언론종합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8/11)



베트남 (1/2)

▪ (미국 제시 상호관세율 및 부과 현황) 46% 상호관세 90일 유예(4/9일 기준), 現 10% 보편관세 발효

- '24년 기준 베트남의 對 미국 흑자 규모는 1,23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 반면, 미국은 계속해서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24년에는 미국 적자국 4위로 집계
- 베트남의 '24년 총 수출액 4,055억달러로 '23년 대비 14.3% 증가 → 대외교역 증가 등의 요인으로 '24년 경제성장률 7.09%로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베트남은 미·중 갈등에 의한 중국 공급망 분산 수혜* 등으로 높은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는 무역 적자를 안기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6%의 상호관세율 베트남에 제시했으며, 교역량 감안 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관세 피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체들 인건비 저렴한 인접국인 베트남으로 생산공장 대거 이전. 또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해외기업은 미국 고관세 대비위해, 베트남 공장에서도 제품 생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추진 → 이에 따라, 트럼프 1기발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이라는 평가

▪ (대응 현황) 미국 주장 '무역 균형'에 초점 맞춰 적극 '협상'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 4/2일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미국 입장 고려한 선제 대응 시작 → 지난 3월, 미국에 ①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 ② 규제 개혁, ③ 미국 기업 사업 지원 등 약속 및 일부 이행

①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 3/31일 자동차 등 관세 인하* 단행 및 미국산 농산물, LNG, 의약품 등 수입 확대 약속

* 자동차 일부 품목 관세율 45~64% → 32%, LNG 5% → 2%, 에탄올 10% → 5%

② (규제 개혁) 불필요한 기업 운영비 및 사업 요건 30% 절감 목표 제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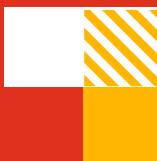
③ (미국 기업 사업 지원) 스타링크* 베트남 현지 진출 허용 추진 및 5년 시범 운영 승인 등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이자 美 정부 효율부(DOGE) 위원장이 운영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외 기업의 통신인터넷 베트남 진출에 제한을 둘ට 왔음

▪ (대응 전망) 경제적 이익 감수까지 고려하면서, 0% 상호관세율 목표로 미국과 '협상' 지속 전망

- 베트남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장벽을 최대한 제거해, 상호관세율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협상 준비 중 → 일환으로, 베트남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중국산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차단할 방침
- 베트남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장벽 요소를 파악하여, 상호관세율 0% 목표로 미국 맞춤식 협상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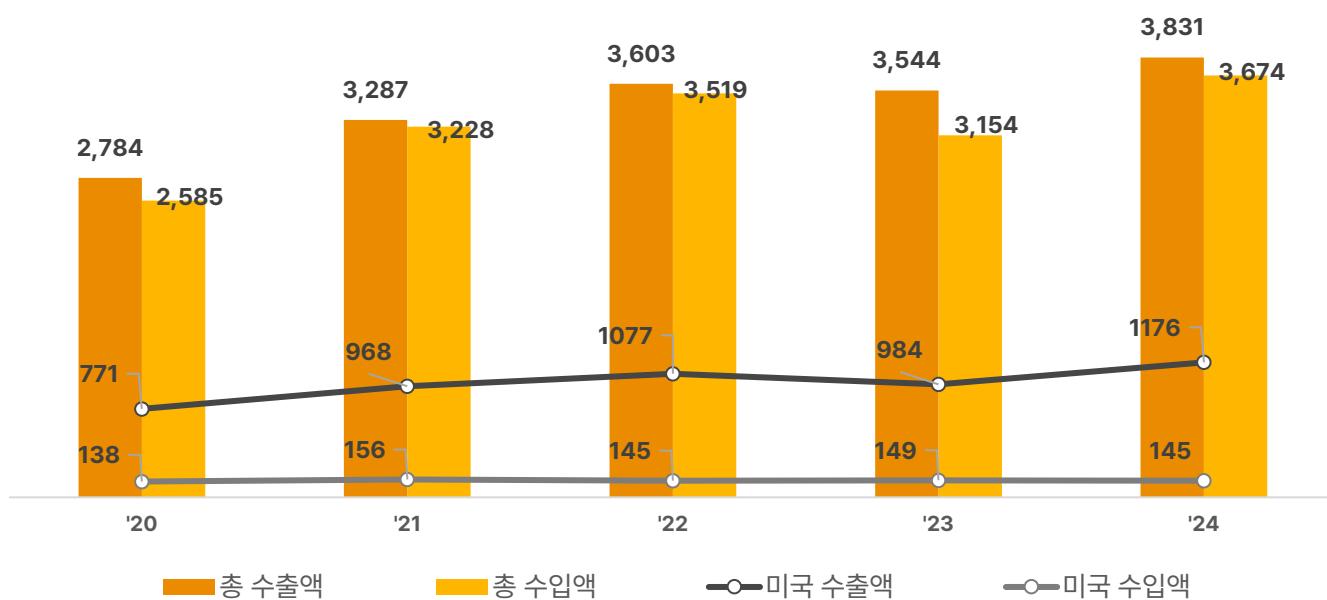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9/11)



베트남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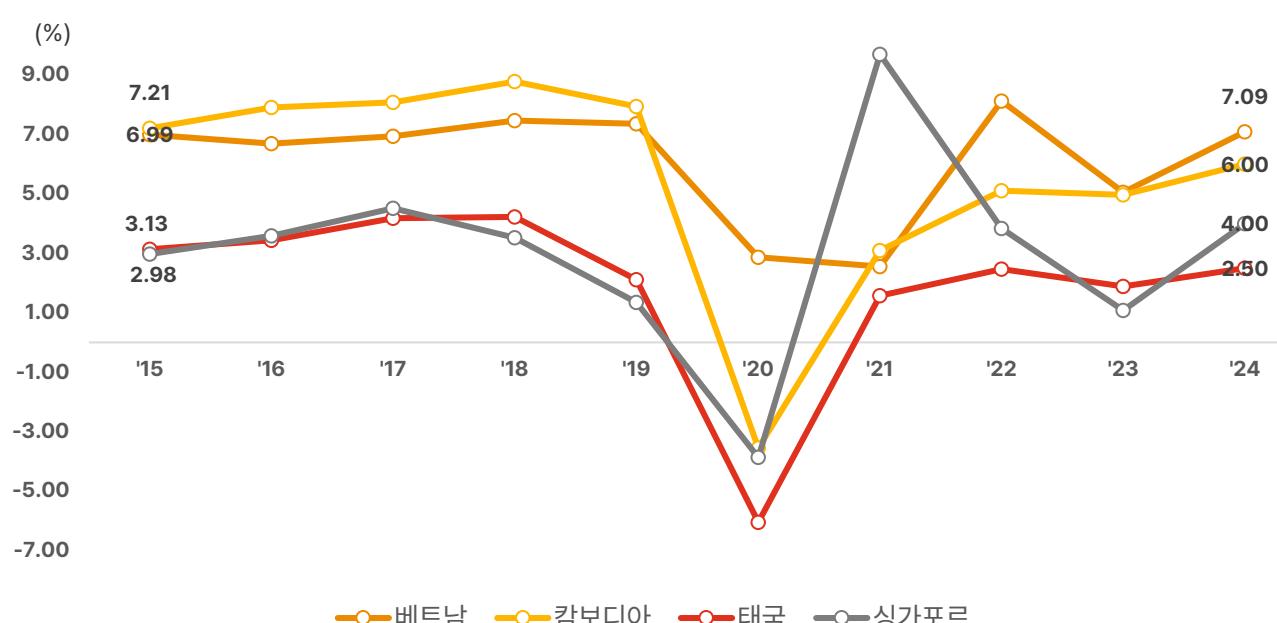
베트남 대외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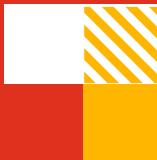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자료: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베트남 및 주요 아세안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World Bank, 각국 통계청, 언론종합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10/11)



인도 (1/2)

▪ (미국 제시 상호관세율 및 부과 현황) 26% 상호관세 90일 유예(4/9일 기준), 現 10% 보편관세 발효

- '24년 기준, 미국의 對인도 무역 적자액은 약 457억달러(수출 418억달러, 수입 874억달러)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에 비해 다소 낮으나, 미국은 인도가 평균 52% 관세를 미국산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50% 할인율 적용해 인도에 26% 관세 제시

* 미국의 對중국 적자액 2,954억달러, 對베트남 적자액 1,235억달러, 對한국 적자액 660억달러 등

▪ (대응 현황) 미국과의 무역 갈등 선제 완화 조치하는 등 적극적 '협상' 진행

- 미국은 인도의 제1 수출국으로, 미국의 고관세 부과가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인식아래, 인도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관세 인하 및 정상회담 등 빨빠르게 선제 대응 시작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실현될 경우, 인도 연간 약 70억달러 손실 추정되며, '24년 GDP 성장을 6.6%(전망치)에서 510bp(0.050.1%p) 하락 전망'

- ✓ (관세 인하) 2/1일 인도 정부는 해외산 자동차, 철강제품, 화학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 발표 →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오토바이, 대형자동차, 화물 운송 차량, 태양광 모듈 등 38개 품목 (평균 관세율 13% → 11%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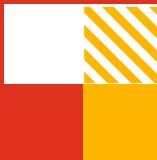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 기본관세 인하 발표된 75개 품목 대다수는 사회보장세 등의 수입품 관련 세금을 오히려 인상시켜 기존 실효관세율은 유지되었으나, 그중 38개 품목만 실제로 실효관세를 인하(38개 인하 품목 대부분이 미국의 對인도 무역 고려한 제품: 예) 미국산 고급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 겨냥해 1,600cc 이상 오토바이 수입 관세 50% → 30% 인하 등)

- ✓ (정상회담) 2/13일 모디 총리 미국 방문해, 미국산 F-35 전투기 및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약속 → 그 결과, '30년까지 인도-미국 무역규모 5,000억 달러 확대 및 '25년 하반기 양자간무역협정(BTA) 협상 시작하기로 합의'

▪ (대응 전망) 양자무역협정(BTA) 협상에 주력해 관세 리스크 완화

-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동안,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 BTA) 협상에 집중해 관세 최소화해 나갈 계획 → 늦어도 '25년 내에 BTA 체결 목표
- BTA 협상을 위해, 인도는 미국이 무역장벽으로 느끼고 있는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11,000여개 관세 품목과 관세 구조 재검토 중 → 미국-인도 상호 이익 차원에서 BTA 체결 진행하겠다는 입장
- 특히, BTA는 상품 교역, 디지털 무역, 전문가 이동,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등 여러 사안을 포함하는 패키지 형태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 → 이를 통해 미국-인도 관세 및 비관세 리스크 완화 전망

3. 주요국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현황 (11/11)



인도 (2/2)

인도 주요 품목 관세 변화 (2/1일 발표)

품목	對미국 무역흑자 (백만달러)	실효관세율	
		조정 전	조정 후
화물 자동차	37	44%	40%
10인 이상 자동차	0.6	44%	40%
의약품	7,575	10%	2.5%
리튬 이온 배터리 폐기물 및 스크랩	0	5%	0%
태양광 모듈 및 기타 반도체 장치	1,938	44%	40%
휴대전화 PCBA 카메라 모듈, 커넥터 등 부품	-15	2.5%	0%
냉동 생선	-0.5	3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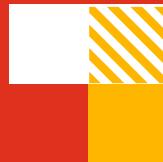
자료: KIET 산업경제이슈('25.2.20)

2/13일 미국인도 정상회담 주요 협의 내용

분야	세부 협의 사항
외교 안보	인도 –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및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추진 → 인도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 및 중국 군사력 견제 전망
	쿼드* 협력 강화 <small>*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으로 이뤄진 정부 간 안보 협의체</small>
	미국인도 새로운 방위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경제	인도 – 미국산 석유, 천연가스 수입 확대
	미국인도 원자력, AI 분야 협력 강화
	'30년까지 양국 무역 규모 5000억 달러 확대
	양자무역협정(BTA) 협상 개시 및 체결

자료: 언론종합

4. 주요 기업 관세 대응 현황 (1/5)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대상의 보편 및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 경제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식별해 품목별 관세 제시 →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이 해당

- ✓ (부과 발효) 해외산 '철강알루미늄(3/12일*)', '자동차(4/3일*)'
- ✓ (부과 발효 예정) 해외산 자동차 부품 (5/3일*)
- ✓ (부과 발효 예고)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해 중대형 트럭(4/23), 반도체(4/14일), 의약품(4/14일), 목재(3/1일), 구리(2/25일) 조사 개시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부과 발효일

**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또는 고율 관세 부과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품목별 관세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해외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고관세 리스크 최소화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개별 기업 대응도 필요
- 특히, 미국발 관세 부과 발효 및 예고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은 관련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도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효과적인 대응 전략 절실한 상황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준비 태세를 높이는데 참고가 되길 바라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미국발 품목 관세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
- 품목별 세부 점검에 앞서, 현재 미국발 관세가 발효된 산업의 주요 기업들의 대응은 크게 ① 미국 내 생산 공장 확대, ② 경쟁사 등과의 미국 내 생산협력 확대, ③ 판매 시장 다각화, ④ 관세 소비자 전가 등으로 구분
-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 갈등 겪어왔던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기술 자립도 제고하고, 미국 의존도 낮춰 글로벌 시장 다각화한 상태 →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영향 크게 받지 않을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품목별 관세 부과 및 예고 현황

발효/예고일	대상	내용
3/12일 발효	철강 알루미늄	해외산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 사용하여 생산된 파생상품' → 25% 관세 부과
4/3일 발효	자동차	해외산 승용차 및 소형 트럭 → 25% 관세 부과* * 다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기준 충족 시, 미국산 가치는 관세 면제
5/3일 발효	자동차 부품	130여개 자동차 부품 품목 → 25% 관세 부과* * 다만, 미국산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 수립 전까지 USMCA 요건 충족 품목 관세 미적용 (한시적)
4/14일 예고	반도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개시(무역확장법 232조)
4/14일 예고	의약품	'의약품과 의약 원료'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개시(무역확장법 232조)

자료: 미국 상무부, 언론종합

4. 주요 기업 관세 대응 현황: 철강·알루미늄 (2/5)

철강·알루미늄

▪ (부과 현황)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25% 관세 확대 발효 (3/12일)

- 철강: 기존 국가에 부여된 쿼터 등의 예외와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 폐지하고, 25% 관세 발효
- 알루미늄: 일부 국가 및 품목 예외를 폐지하고 기존 10% 관세율을 25%로 확대해 발효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약 258여개* 파생상품에 25% 관세 발효
 - ✓ 볼트너트스프링 등 172여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
 - ✓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부품, 항공기부품, 기계류 등 87여개 파생상품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 * 172개 + 87개 중에서 알루미늄 1개 품목 중복되어 총 258여개 파생상품 관세 부과
 - ✓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맥주캔, 빈 알루미늄 캔에도 25% 관세 4/4일 부과

▪ (주요 기업 대응 현황)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업간 협력통한 미국 생산 확대, 미국 기업과의 M&A, 글로벌 판로 다각화 등으로 관세 대응 중

대응 전략	기업	세부 대응 방향
미국 내 생산 확대	현대제철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 달러 투자해, 자동차 특화 전기로 제철소 건립하겠다고 3/24일 발표 → 미국 내 생산 제품에는 관세 물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 건설되는 전기로 제철소의 생산 능력은 연 270만톤으로 계획 중이며, 현대차기아 차종에 사용되는 강판을 주력으로 공급할 예정 (건설 기간: '26년 3분기~'29년 1분기) - 루이지애나 선택 이유 → ① 현대차기아 미국 생산 공장(앨라배마, 조지아)과 인접해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공급 가능, ② 저렴한 산업용 전력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이지애나 천연가스 매장량 7위(미국 50개 주 기준) → 다양한 천연가스 토대로 산업용 전력비 저렴
기업간 협력통한 미국 생산 확대	포스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는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사업에 지분 투자하여, 일부 생산 물량을 직접 판매할 계획 → 관련하여 4/21일 현대제철과 MoU 체결
미국 기업과의 M&A	니폰스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폰스틸의 US스틸 인수*를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약화 이유로 금지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인수 불허 결정 재검토 4/7일 지시 → 니폰스틸의 US스틸 인수 가능성 높아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12월 니폰스틸은 US스틸과 149억달러 인수 계약 합의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 좌초 - 니폰스틸은 US스틸 인수 계약 완료시 추가로 70억 달러 투자 제안하는 등 인수 추진에 박차 → 인수 성공시, 이를 토대로 미국 생산 거점 확대 전망
글로벌 판로 다각화	리오틴토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오틴토 전체 매출의 약 17%가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을 전망 → 이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 등의 대체 시장 개척 준비중 - 더불어, 리오틴토는 10년 전 칠수했던 인도 시장 복귀 추진 중 → AMG M&M과 합작해 연 100만톤 규모 제련소 건설 계획 ('30년 1단계 완공 목표)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립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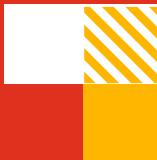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미국 내 루이지애나 전기요금

(단위: kWh당 센트)



* '25년 3월 기준 요금
자료: 미국 EIA, 언론종합

4. 주요 기업 관세 대응 현황: 자동차·부품 (3/5)



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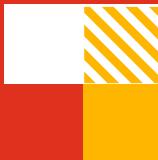
▪ (부과 현황) 자동차 25% 관세 발효 (4/3일), 자동차 부품 25% 관세 발효 예고(5/3일)

- **자동차:** 해외산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화물밴)과 경트럭에 25% 관세 발효 (4/3일)
- **자동차 부품:** 엔진, 변속기, 타이어, 차량용 컴퓨터 등 150여개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5/3일 발효 예고
- **트럭:** 4.5톤 초과 중대형 트럭과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파악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4/23일 개시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완화 준비 중 (4/29일 기준) → 모니터링 필요

▪ (주요 기업 대응 현황) 미국 내 생산 확대, 미국 생산 부품 상호 협력, 제품 가격 인상, 기술력 제고통한 시장 다각화 등으로 관세 대응 중

대응 전략	기업	세부 대응 방향
미국 내 생산 확대	현대차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는 '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 신규 투자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예고 → 구체적으로 자동차 생산, 부품물류 철강,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생산: 86억달러 투자해, 미국 3호 공장 HMGMA 생산 능력 연 50만대로 확대함으로써, 미국 현지 생산* 120만대 체제 구축 계획 *현재 현대차그룹 미국 내 생산 능력: 100만대 ✓ 부품물류 철강: (현대제철) 61억달러 투자해, 美 루이지애나에 연 270만톤 전기로 제철소 건설 및 미국 공장 설비 증설 통한 부품 현지화를 제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부품 현지 조달 추진 등 ✓ 미래 산업 및 에너지: 63억달러 투자해, 자율주행, 로봇, AI,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미래 기술 관련 미국 기업 협력 확대 - 현대차 미국 투자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어,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BMW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의 생산량 8만대 확대 방안 검토 중 <small>*현재 연 40만대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BMW 생산공장 중 최대 규모</small>
	폭스바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아우디 차량을 미국 현지 생산 계획 중 (4/18일 발표)
미국 생산 부품 상호 협력	혼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다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하이브리드차량(HEV)에 도요타의 미국 생산 배터리*를 조달 받아 장착할 예정 <small>*도요타는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북미 최초 배터리 공장(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2조엔 투자해 건설했으며, 25년 4월부터 가동</small>
	마쓰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쓰다 미국 생산 능력은 판매 대수의 30% 수준이며, 대부분은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 이에 따라, 마쓰다는 대주주인 도요타*의 북미 부품 공장 활용해 생산 검토 중 <small>*도요타는 마쓰다 지분 21% 보유</small>
	도요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생산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주에 위치한 배터리 3공장으로부터 배터리 공급 받을 예정
제품 가격 인상	폭스바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외 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은 수입 요금* 명목으로 관세 부담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 예정 <small>*유럽 등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 시, 차량 가격표에 배송료/도착지 요금 항목을 표시해 25% 관세 전가</small>
기술력 제고 통한 시장 다각화	BYD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미국 진출이 막혀 있는 BYD는 기술력을 높여 브라질, 인도 등의 신흥국으로 판매 시장을 다각화 - 특히, BYD는 5분 충전시 470km 주행 가능한 새 충전 시스템을 '25년 3월 발표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 차종에 탑재해 글로벌 고객층을 확보한 상태 -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대다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가격 인상 압박 없이 높은 기술력 강조 가능

4. 주요 기업 관세 대응 현황: 반도체 (4/5)



반도체

▪ (부과 현황)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조사 개시 (4/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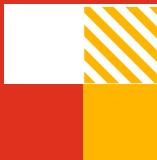
-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SME)와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4/14일 시작 → 해당 조사는 관세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 완료 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관세 발표 및 발효 전망
-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 (4/11일 발표) →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완료되면, 자동차처럼 반도체도 품목별 관세로 부과할 가능성 농후
- 그러나,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반도체 조사도 1년 가량 소요 전망

* 철강 알루미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17년 4월~18년 3월 조사, **자동차: 18년 5월~19년 4월 조사

▪ (주요 기업 대응 현황) 미국 투자 확대, 시장 독점, 제품 가격 인상, 기술력 제고 등으로 관세 대응 중 →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무역 제재 받아온 중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현재 높은 기술력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권 유지 중

대응 전략	기업	세부 대응 방향
미국 투자 확대	TSMC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SMC는 향후 4년간 미국에 1000억달러 신규 투자하겠다고 3/3일 발표 → 신규 투자금은 애리조나주 5개 제조 공장 건설 및 반도체 R&D 센터 건립에 사용될 전망- 기존 6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3개 공장을 건설해온 TSMC는 1천억 신규 투자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등극- TSMC 투자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TSMC 신규 투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
	NVIDIA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비디아는 향후 4년간 5000억달러 투자해, 미국에 AI 하드웨어 생산시설을 협력사와 구축하겠다고 4/14일 발표 → 미국 내에서 생산된 주요 부품으로 AI 슈퍼컴퓨터 생산 목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칩 생산: TSMC 애리조나주 공장✓ 슈퍼컴퓨터 생산: 폴스콘 및 위스트론의 텍사스 공장 생산 (건립 중)- 엔비디아의 투자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아니었다면, 엔비디아는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
시장 독점	ASM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노광장비 시장 독점 토대로, 미국 관세 영향 없이 중국 투자 확대 집중
제품 가격 인상	마이크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부가 시, 메모리 모듈과 SSD 등 일부 제품 가격 인상 계획
기술력 제고	화웨이-SMIC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팹리스(설계) 기업 화웨이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SMIC 간 동맹으로,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급 칩 개발 및 생산 → 딥시크 - 화웨이 AI 칩 어센드 910B* 사용 <p>*SMIC의 7나노미터</p>
	화웨이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웨이 자체 개발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활용한 시범 생산 돌입

4. 주요 기업 관세 대응 현황: 의약품 (5/5)



의약품

▪ (부과 현황) 의약품과 의약 원료'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개시 (4/14일)

- '의약품과 의약 원료'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4/14일 시작 → 해당 조사는 관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 완료 후 의약품 관세 발표 및 발효 전망
 - *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완제 의약품, 의료대응제품, 활성의약품원료(API) 및 주요 출발 물질과 같은 핵심 투입물질, 의약품목의 파생제품 등 의 조사 시행
- 트럼프 대통령은 4/2일 상호관세 계획 발표 당시, 의약품 및 의약 원료는 미국 공중 보건 악화 이유로 상호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한 상태 → 하지만, 4/14일 무역확장법 232조 토대로 의약품 조사 시작함에 따라, 자동차처럼 의약품과 의약 원료도 품목별 관세로 부과할 가능성 농후

▪ (주요 기업 대응 현황) 미국 내 생산 확대로 관세 대응 중 →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에게 미국에서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공급망 확대 움직임 활발

대응 전략	기업	세부 대응 방향
미국 내 생산 확대	일라이릴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5년간 270억 달러 신규 투자해, 미국 내 4개 제조 시설 '메가 사이트' 건설 계획을 2/26일 발표 → 구체적 공장 부지는 '25년 말 공개 예정이며, 4개 제조시설 중 3개는 활성의약품원료(API) 제조에 사용될 계획- 이번 신규 투자로, 일라이릴리가 '20년*부터 미국에 투자한 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국 제약 제조사 중 역사상 최대 규모 <p>*일라이릴리는 '20년~'24년 230억달러 투자해, 노스캐롤라이나와 인디애나에 신규 제조 시설, 인디애나폴리스 제조 시설 확장,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개발, 위스콘신 시설 인수 및 확장 진행</p>
	노바티스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5년간 230억 달러 투자해, 미국 내 6개 제조 공장(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과 연구 개발 시설 확장 계획 4/10일 발표- 노바티스는 미국 판매용 의약품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관세 대응할 방침
	존슨앤존슨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4년간 550억달러 투자해, 미국 내 R&D 기술 인프라 확대할 계획 3/21일 발표 → 투자금 통해 매드테크 사업위한 새로운 첨단 제조 시설 3개 건설 및 종양학, 로봇 수술, 면역학 등의 치료법 개발 위한 R&D 인프라 확대- 존슨앤존슨은 고부가가치 의약품 제조를 미국 본토에 배치하고 북미 시장 중심의 유통 체계 구축 계획



트럼프 대통령 Talk.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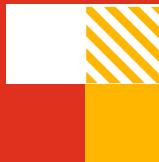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제약사와 다른 기업들을 세금을 통해 가져갔으며, 아일랜드를 기업이 이전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이전을 막았을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아일랜드로 떠나기 시작했을 때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당시에 그랬었겠지만, 미국에 무엇인가 팔려고 했을 때 저였다면 200% 관세를 매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미국에 남았을 것입니다."

- 3/12일, 아일랜드 총리 회담 중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에, (관세 영향으로) 기업들은 결국 미국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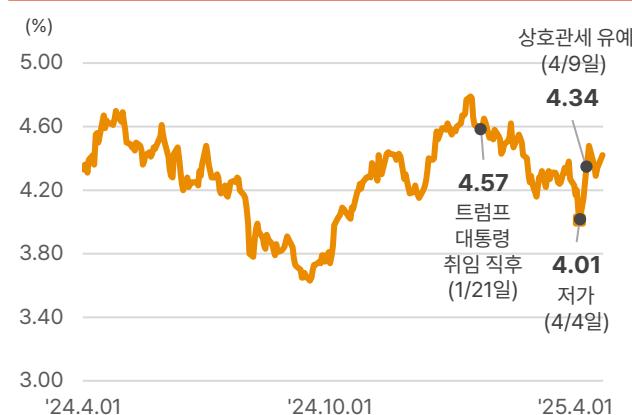
- 4/8일 공화당 전국위원회 행사에서

5. 시사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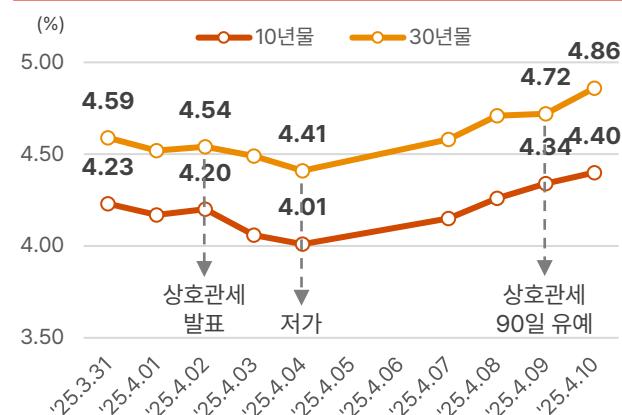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5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13시간만에 중국만 제외하고 90일 유예로 변경 →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의 표면적 이유를 '상대국의 협상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 이유는 '미국 채권 변동'에 있다는 분석
 -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기대 반영 지표로,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로 국채 금리 급상승(국채 값 하락)하는 등 국채 시장 요동*하자, 90일 유예로 관세 속도 조정했다는 분석 다수
 - *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게 되면, 美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들이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채권 가격 상승)하게 됨.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4/2일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01% 까지 하락했으나, 4/4일부터 급격히 상승되기 시작 → 미국 국채에 경우, 금리가 0.2%만 변동되어도 큰 변화로 인식
- 더불어, 미국 주가와 달러 가치 하락 등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확대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관세 발표-유예가 반복되고 있는 중
-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 카드 계속 사용할 전망으로, 한국과 관련 기업의 전략 구축 및 대응은 필요한 상황

美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FRED

美 국채 10년, 30년물 금리 ('25.3.31~4.10)



자료: FRED

미국 주가 추이 (S&P500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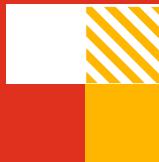
자료: Nasdaq

미국 달러 가치 추이 (달러 인덱스)



자료: Market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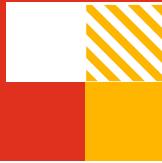
5. 시사점 (2/2)



- 그럼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국발 고관세에 대응해야 할까? → 미국 '밖' 국가들의 대응 전략 참고해 관세 최소화 노력
 - 4/9일 기준 90일 유예된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이미 10% 부과 밸효된 보편관세까지 고려하여 관세율 최소화할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4% 수준이었던 만큼, 현재 밸효된 10% 보편관세율은 미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보편관세도 신경 써서 대책 마련

트럼프 100일 동안의 미국 '밖'의 대응 움직임

	국가	대응 움직임
국가 대응	중국	<p>(보복) 낮아진 미국 의존도, 기술 자립도, 핵심 광물 등의 무역 카드로 맞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갈등 이후, 미국 의존도 줄이고 무역 시장 다각화한 체력으로 현재 보복 대응 중 핵심 광물, AI 등의 기술력 제고 및 자립도도 미국발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EU	<p>(협상+보복) 경제적 이익 크게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하고 있으나, 보복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상호간 관세 전면 철폐하는 등의 상호 이익 측면에서 관세 협상 진행 그러나 협상에서 만족스런 결과 도출 실패 시, 보복 조치 계획
	베트남	<p>(협상) 미국 주장 무역 불평등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적극 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주장하는 무역 장벽 (대미 무역 불균형, 규제 개혁, 미국 기업 지원 등)을 최대한 완화시켜, 상호관세율 0%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협상 진행
	인도	<p>(협상) 미국과의 무역 갈등 선제 완화 조치하여 적극 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관세 인하 및 미국 투자 확대 약속 등을 진행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동안, 미국과 양자무역협정 체결에 집중하여 관세 최소화할 계획
	일본	<p>(협상) 미일 동맹 및 미국 투자 강조한 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비 인상 등 안보 동맹으로 협상 접근 미국 투자 증액 및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협상에서 강조
산업 대응	철강 알루미늄 (現 25% 관세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공급망 이전 및 생산 확대, 기업간 협력통한 미국 생산 확대, 미국 기업과의 M&A, 글로벌 판로 다각화 등으로 대응
	자동차 (現 25% 관세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공급망 이전 및 생산 확대, 기업간 미국 생산 부품 협력, 기술력 제고 기반 시장 다각화,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대응
	반도체 (관세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투자 확대, 기술력 제고, 시장 독점,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대응
	의약품 (관세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공급망 이전 및 생산 확대로 대응



삼일PwC경영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고서 시리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선거 공약의 주요 내용

'트럼프 2.0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24.11)'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진행 사항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 상상 이상이 된 현실('25.03)'



트럼프 대통령 4/2일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

'美, 관세전쟁을 선포하다: 궁금증 10문 10답('25. 04)'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국 무역장벽에 주요 내용

'미국이 말하는 '한국' 무역장벽 이해하기('25. 04)'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선임연구원

hyojin.h.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Business Contacts

삼일PwC Global Trade Solution Center

GTSC 센터장

강명수 센터장
2287-1800
myung-soo.kang@pwc.com

통상

소주현 Partner
709-8248
so.juhyun@pwc.com

국제조세총괄

전원엽 Partner
3781-2599
won-yeob.chon@pwc.com

해외진출자문

정민우 Partner
3781-9816
min-woo.jung@pwc.com

무역구제(반덤핑)

한종엽 Partner
3781-9598
jongyup.han@pwc.com

무역구제(반덤핑)

김중현 Partner
3781-2338
joong-hyun.kim@pwc.com

무역구제(반덤핑)

이승욱 Partner
709-7012
seung-wook.lee@pwc.com

해외세제

박광진 Partner
709-8829
kwang-jin.park@pwc.com

이전가격

박준환 Partner
709-8991
jun-hwan.park@pwc.com

해외M&A

허제현 Partner
3781-9440
je-heon.heo@pwc.com

공급망시스템

최준걸 Partner
3781-9803
jun-kirl.choi@pwc.com

관세

이영모 Partner
3781-3140
youngmo.lee@pwc.com

수출통제

김현준 Director
3781-9161
hyun-jun_1.kim@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4W-RP-053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